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0월 6일 보스톤 과학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천절 기념 행사. 이날 행사는 보스톤의 K-과학자들이란 주제로 많은 과학인재들을 중심으로 초대해 개최했다

## 김총영사, '보스톤 K-과학자들과 함께한 개천절...한미 과학 협력 강조'

개천절 행사의 키워드는 과학, 과학박물관에서 과학자 중심으로 개최 많은 과학계 관계자들 한인사회 행사에 참여, 한인들과의 만남 가져 개천절 신화에서 배우는 끈기강인함 미국에서 삶에서 자랑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보스턴총영사관이 2025년 개천절 행사를 10월 6일 추석날 밤 보스톤 소재 과학박물관(Museum of Science)에서 250여명의 한인과학자, 한인 단체장, 그리고 각국 외교관 등을 초청해 개최했다. 개천절이라는 민족 고유의 유산을 통해 한인사회와 한인 과학인들 그리고 보스톤 사회까지 공감과 정서적 연대를 모색하

**〈전체 기사 읽기〉**  
는 행사였다.

이번 단기 4358년 개천절행사는 '보스톤의 K-사이언티스트(K-Scientist)' 라는 주제로 한국 과학자의 업적과 공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보스톤 과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과학자들이었다. 아래층에 마련된 부스에는 총 10 >>10면으로 계속

##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사추세츠 예산 37억 달러 삭감

할리 주지사 "주민 생활·공공안전·보건 모두 직격탄"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올해 들어 매사추세츠 주에 대한 연방 지원 예산을 무려 37억 달러나 삭감했다고 주정부가 대시보드를 통해 7일 공개했다. 이 대시보드(mass.gov/fedimpac)에 따르면 예산 삭감은 주민들의 건강보험, 주거 지원, 공공안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탱해 온 주요 프로그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예산 삭감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며, 의료 서비스를 빼앗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할리 주지사는 또 "어떤 주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 삭감을 자체적 >>7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건설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지에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 차세대 원자력 · 핵융합에너지 로드맵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차세대 원자력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주 매사추세츠 로웰대학(UMass Lowell)과 협력해 향후 4개월 동안 ‘첨단 원자력 및 핵융합에너지 로드맵(Advanced Nuclear and Fusion Energy Roadmap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매사추세츠가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저렴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에서 “매사추세츠는 첨단 원자력과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저렴한 전력,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기술”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로웰대 공과대학의 핵공학 교수이자 연구부하장인 수케시 아가라(Sukesh Aghara) 교수가 이끌 예정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로드맵은 ▲매사추세츠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고 ▲장기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사회와의

포용적 협력 전략을 세우고 ▲뉴잉글랜드 인접 주들과의 공동 계획을 조율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이나 해체된 원전의 재가동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코네티컷의 밀스톤 원전과 뉴햄프셔의 시브룩 원전 두 곳만이 가동 중이며, 이들 원전은 지역 전력 수요의 20~25%를 충당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마지막 원전이던 필그림 원전은 2019년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 중이다.

에너지부의 레베카 테퍼 장관은 “2025년의 원자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 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연료 교체 주기가 길며,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힐리 행정부는 또 올해 봄 의회에 제출한 에너지 법안에서, 새 원전 건설 시 전체 유권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1982년 제정 주민투표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주정부는 “핵융합 발전소는 이미 투표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은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기

**<전체 기사 읽기>**  
술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슷한 원전 제한법을 가진 14개 주 가운데 8개 주가 2020년 이후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iscal Alliance Foundation 의뢰해 Advantage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유권자의 50.8%가 새로운 원전 건설에 찬성했으며, 그중 84.5%는 매사추세츠가 이 분야에서 지역 선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사추세츠에는 로웰대와 MIT 두 곳에 미국 전체 25개 연구용 원자로 가운데 2기가 설치돼 있으며, 로웰대는 학생들에게 원자로 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는 “매사추세츠 내 핵 연구는 에너지뿐 아니라 국방, 헬스케어, 생명공학, 특히 암 연구 등 세계적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리 행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최종 결과를 2026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배경) 이번 로드맵 추진은 매사추세츠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해상풍력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체 에너지 확보와 전력 안정화를 위한 전략 전환으로 풀이된다. 힐리 주지



사가 ‘핵융합’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첨단 기술에 공공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원자력이 새로운 기후 친화적 에너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달린 시선을 암시한다. 동시에 매사추세츠가 기후 친화적 에너지 허브로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는 핵융합에서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 소형원자로에서는 GE버노바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주에 비해 한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SEUL SEOLL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id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칠당귀, 신수유, 상항너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 단점 고객센터 권려권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보스톤 발레 김석주 세컨 솔로이스트로 승격, 김보경 보스톤발레 합류

보스톤발레단, 2025~2026 시즌 단원 명단 발표... 전 세계 14개국 69명 무용수 참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발레단(Boston Ballet) 한국 무용수 김석주가 세컨 솔로이스트(Second Soloist)로 승격하고, 김보경이 보스톤발레 2(Boston Ballet II, 이하 BBII)에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김석주는 2022년 보스톤발레단에 입단한 이후 안정된 테크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는 이번 승격으로 주요 솔로 작품 무대에 오를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

**〈전체 기사 읽기〉**  
김보경은 한국 김해시 출신으로, 이번 시즌부터 BBII 무용수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등 다양한 국적의 신입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나설 예정이다.

보스톤발레단은 올해 전 세계 14개국에서 온 69명의 전문 무용수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약 33%가 유색 인종 또는 다인종이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단체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은 “새로운 단원들과 승진한 무용수들은 보스톤발레단의 예술적 깊이를 한층 더할 것”이라며 “이들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목소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즌에는 일본의 스카이 마도카와 중국의 왕팅 자오가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로 합류했으며, 아르헨티나의 프란시스코 실레레프가 세컨 솔로이스트로 입단했다. 또 미국 출신 무용수 케이트 서니, 오브리 다니엘스, 스펜서 웨더링턴이 컴퍼니 아티스트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보스톤발레단은 오는 10월 뉴욕시티발레단 출신 필립 닐을 새 예술부감독으로 영입한다. 닐은 발란신과 로빈스의 대표작을 다수 재현한 안무가이자 교육자로, 보스톤발레단과 10년 가까이 협업해온 인물이다.

보스톤발레단의 새 시즌과 단원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bostonballe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석주



김보경



## 보스톤 산악회 아이젠하워 마운틴으로 16차 정기 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뉴햄프셔 화이트필드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마운틴(Mt. Eisenhower)으로 16차 정기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난이도 5단계 중 4로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왕복 6.6마일 코스로 진행된다.

준비물로는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 중식이 권장되며, 특히 정상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겨울 장갑과 방풍 재킷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자는 B조 또는 C조 참여를 권장하며, 먼티셔츠나 청바지 등은 삼가고 드라이핏(Dry Fit)과 같은 기능성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 시간은 오전 7시 정각, 장소는 93번 뉴햄프셔 출

**〈전체 기사 읽기〉**  
구 2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비는 1인당 20달러다.

산행 신청은 10월 16일(목)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시 원하는 코스(A·B·C), 차량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밝혀야 하며, 첫 참가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산악회 측은 “신청 후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반드시 연락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산행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전날 보스톤산악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는 617-780-9588에 하면 된다.



###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및 은퇴 준비

- 전문적인 세무전략과 절세플랜
- 재정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플랜
- 메디케어

**SPEAKERS**

**Kenny Shin**  
UNI President / CEO

**Gina Shin**  
UNI VP / EA 세무사

**Lori Moon**  
District Marketing Director  
EA 세무사







**EVENT DETAIL**

날짜 : 은퇴/세금절세 10/17(금) 7PM  
10/18(토) 10AM  
메디케어 10/18(토) 1PM

장소 : 117 Kendrick St Suite 300  
Needham, MA 02494

RSVP : UNI Boston 617-468-6446  
unioffice.ma@gmail.com

 www.uniwfm.com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 가을 야유회 성료

### 1958학번부터 2018학번까지 60년 차 동문을 한자리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가 지난 9월 27일 토요일 보스톤의 크리스찬 허티파크에서 2025년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958학번부터 2018학번까지 60년에 걸친 동문들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서는 준비된 다양한 종류의 김밥과 떡볶이, 바비큐와 떡 등 음식을 함께 나누며 처음 만나는 동문들도 금세 친밀해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무작위로 조를 나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선후배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조에 합류해 세대 간 교류와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조별 모임에서는 보스톤에 오래 거주한 선배들이 예전의 추억던 보스톤 생활을 회상하는 한편, 새로 정착한 유학생 후배들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세대를 넘어 공감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원덕수 회장은 “젊은 동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년맞이 모임도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또는 케임브리지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난 9.27 동문회 야유회처럼 시간과 경비, 자원을 절약하며 모든 동문들이 ‘Symbiotically, Energetically’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갖겠다” 고 말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 참석을 희망하는 동문은 원덕수 회장 (douglasdwohn@gmail.com)이 나관악회 정해원 회장 (emilo83@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한인 골프 애호가 친목골프모임 10월 18일 개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친목골프모임이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웨일랜드의 샌디버 컨트리클럽(Sandy Burr Country Club, 103 Cochituate Rd., Wayland)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은 순수한 친선과 교류를 위한 행사로, 모든 골퍼들에게 열려 있다.

티타임은 오후 12시 정각부터 시작되며, 해가 지기 전까지 이어진다. 18홀 라운드를 즐기 고자 하는 참가자는 오전 11시 30분 이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참가비는 카트 포함 100달러다. 늦게 출발하는 참가자는 9홀(카트 포함 50달러)로 플레이하게 되며, 10번 홀에서는 홀인원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홀인원 특별상은 2025년형 기아 스포티지(Kia Sportage)다.

참가를 원하는 골퍼는 사전에 조진행 (781-266-6990) 또는 원덕수 (617-921-6798)씨에게 예약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기억의 공유와 감동을 선사한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이 6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뉴욕 디아스포라 재단 주관, 보스톤 한미예술 협회와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로 10월 3일 보스톤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홀에서 열린 공연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1부에서는 김동민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4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New York Classical Players, NYCP)가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을 장중하게 연주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해 원숙한 기량과 따뜻한 에너지를 선보였다. 연주가 끝난 뒤 관객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고, 세 번의 커튼 콜 끝에 백혜선은 쇼팽의 〈녹턴 20번〉을 앙코르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2부에서는 재미 작곡가 김택수의 신작 칸타타 〈들풀(The Grass Still Grows)〉이 세계 초연됐다. 약 40분간 이어진 작품은 100여 년 전 뉴욕에서 전개된 한인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나라 잃은 민족의 간절한

〈전체 기사 읽기〉  
 염원과 미국 독립선언문,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민자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신앙적 소망을 담았다.

소프라노 홍혜란,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최원휘, 바리톤 최기돈 등 국내 외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으며, 김동민 지휘자와 NYCP의 폭넓은 표현력과 풍성한 사운드는 작품의 서사와 감동을 더욱 깊게 했다. 공연 후 무대에 오른 김택수 작곡가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관객은 “보스톤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어로 된 곡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다. 독립운동을 다룬 대목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1980년대 시국 선언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서사에서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예술로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며, 음악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의 울림”은 이틀 뒤인 10월 5일(일) 오후 5시, 1921년 첫 한인 뉴욕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뉴욕 타운홀(The Town Hall, 123 West 43rd St, New York, NY)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공연됐다.

〈음악회 리뷰〉

## “자유의 울림”: 디아스포라 기억 속에 울려 퍼진 음악의 힘

손민경(음악학자,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지난 10월 3일, 보스톤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에서 열린 콘서트 “자유의 울림(Resonance of Freedom)”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역사와 공동체, 그리고 정체성을 아우르는 깊은 울림의 장이었다. 한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New York Classical Players)의 정교한 해석과 함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화적 목소리를 음악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층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 공연이 단순한 음악적 감상이 넘어 공감과 연대의 현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공연의 서막을 연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은 강인한 동기의 대비와 영웅적 주제가 어우러져, 한국 독립 투쟁의 서사와 맞닿는 듯한 극적인 긴장감을 전했다. 김동민 지휘자의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제스처는 오케스트라에 명확한 방향성을 부여했고, 그 안에서 베토벤의 극적 서사가 생생히 펼쳐졌다. 이어 연주된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에서는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가 정교한 호흡으로 장엄하고 품격 있는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의 환호를 받은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음악과 완벽히 하나 된 듯한 움직임과 깊은 호흡으로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를 선보였다. 그녀의 연주는 곡의 제목처럼 고귀하면서도 내면적인 울림을 지녔으며, 세 번의 커튼콜 끝에 선보인 앙코르곡 쇼팽의 〈녹턴 20번〉은 슬픔과 회한의 정서를 섬세하게 승화시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2부에서는 작곡가 김택수의 세계 초연작 〈칸타타 들풀(The Grass Still Grows)〉이 무대에 올랐다. ‘기억, 공동체,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한글, 영어, 라틴어의 다언어적 텍스트를 사용하며, 디아스포라의 다층적인 역사

〈전체 기사 읽기〉  
 와 정체성을 음악적으로 구현했다. 김 작곡가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언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 문맥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예술로 확장해 온 대표적인 현대 작곡가다. 이번 칸타타에서는 민요 선율과 장단, 미국적 찬송가와 재즈 리듬이 공존하며, 로컬과 글로벌, 전통과 현대, 한국과 미국의 사운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 보였다.

가사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준순 목사의 설교문, 성경 시편의 구절, 미국 독립선언문, 신사임당의 시, 디아스포라 시인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뉴욕 한인 교회 시국 선언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텍스트들이 음악 속에서 하나의 서사로 엮였다. 네 명의 남녀 성악가(홍혜란, 김효나, 최원휘, 최기돈)가 들려준 아리아, 레치타티보, 중창 등은 호소력 있는 울림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소통하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 미래를 향한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철학자 아도르노(T. W. Adorno)는 “진정한 예술이란 사회적 진실을 모방함과 동시에, 외부 세계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공연은 음악이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기억을 소환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문화적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음악을 통해 집단 기억을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대와 희망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무대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 음악이 보스톤을 시작으로 더 널리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예술적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M LAW OFFICE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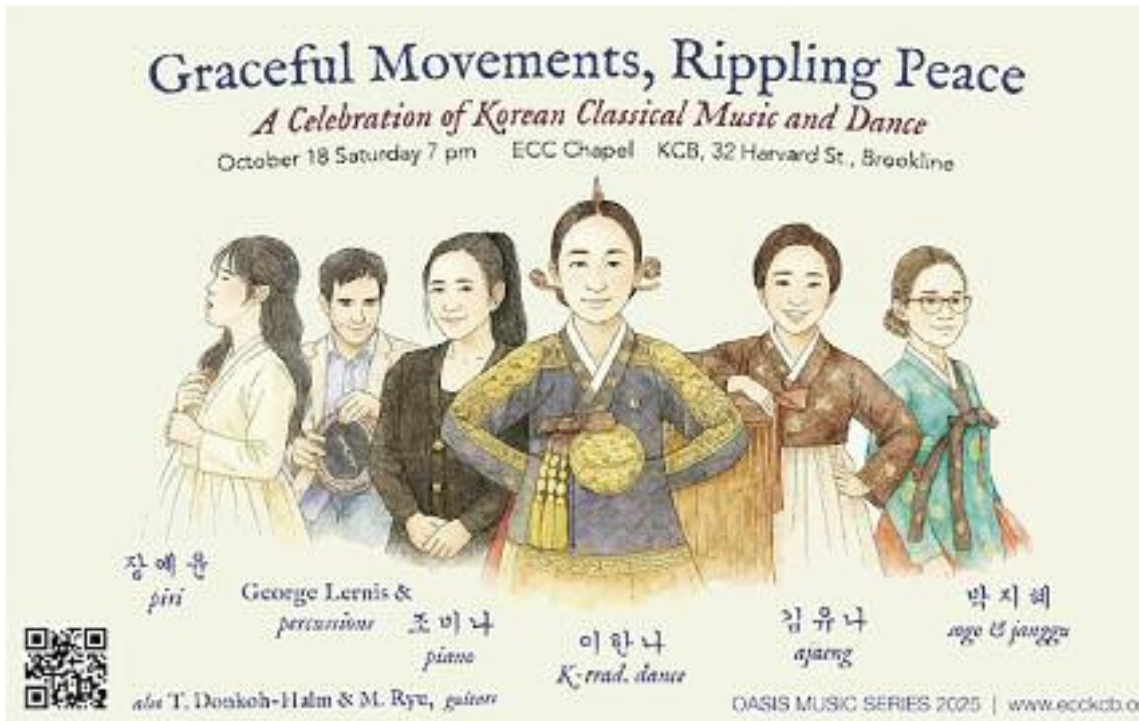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단아한 몸짓으로 전하는 평화의 울림

보스톤한인교회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밤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가 주최하는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Oasis Music Series)' 가 이번 가을,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특별한 무대 '단아한 몸짓, 평화의 잔물결' 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과 춤을 통해 고요하지만 강한 평화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보스톤과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한다.

'단아한 몸짓, 평화의 잔물결' 은 한국 예술문화의 뿌리 깊은 정서와 절제된 아름다움을 중심에 두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탐색한다. 오랜 세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로 불려온 한국의 문화에는 평화를 향한 염원이 스며 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평화는 언제나 도전과 고난 속에서 지켜온 가치였고, 그 정신은

**〈전체 기사 읽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세계가 주목한 '광장의 촛불' 로 빛을 발해왔다. 공연은 타악과 무용의 역동적인 협연으로 막을 올린다. 무용가 박지혜의 활기차고 리듬감 넘치는 무대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뒤, 이한나의 '태평무' 가 이어진다. 태평무는 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전통 춤으로, 절제된 동작과 우아한 발걸음에서 시작해 점차 찬란한 클라이맥스로 향하며 한국적 미의 정수를 표현한다.

이어 무대에는 조미나와 George Lemis, 장예윤과 버클리 음대 동문 연주자들이 올라 전통 음악에 현대적 감성과 세계적 리듬을 결합한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다. 공연 후반부에는 아쟁 산조와 김유나의 민요 연

주가 이어지며, 전통의 깊은 울림이 다시 무대 중심에 자리한다.

희망의 작은 떨림이 커다란 물결이 되듯 공연은 '아름다운 나라' 의 이상을 연주로 대미를 장식한다.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 는 보스톤한인교회가 보스톤 및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을 위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커뮤니티 문화 프로그램 '오아시스 음악의 밤(Oasis Music Night)'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일시: 2025년 10월 18일 (토) 오후 7시

장소: ECC채플 (보스톤한인교회 내),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입장료: 무료 | 기타 문의사항: www.ecckcb.org

bostonkorean@hotmail.com



## 뉴잉글랜드 지역, 이번 주말 첫 '노이스터' 영향받을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이 올 가을 들어 첫 노이스터 (Nor'easter)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스톤글로벌브는 8일 주요 예보 모델들을 인용,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남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바람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남쪽에서 올라와 동북쪽으로 빠져나가는 눈폭풍우로 잘 알려진 노이스터는 반드시 눈을 동반하지는 않으나, 북동풍이 시속 30마일에서 50마일에 이르는 강풍을 몰고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도 폭풍 중심이 뉴잉글랜드 남쪽 해상에 머물며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일기 예보 모델인 GFS와 유럽(ECMWF) 모델 모두 이번 폭풍이 뉴잉글랜드 남쪽 해상에서 정체하며 보스턴, 프로비던스, 하트포드, 남부 메인과 뉴햄프셔 지역에 비와 강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폭풍의 경로를 결정짓는 변수는 뉴잉글랜드 북쪽에 자리잡은 강한 고기압이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렉스 블록 (Rex block)' 이라 부르며, 북쪽 고기

**〈전체 기사 읽기〉**

압이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진행을 막아 폭풍의 속도를 늦추거나 경로를 바꾸게 만든다.

현재 예보로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남부 뉴잉글랜드에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된다. 특히 케이프 코드와 로드아일랜드 남부, 매사추세츠 남동부 지역은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보스톤역시 시속 40마일을 넘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풍의 주된 위험 요소는 비보다는 바람이다. 북쪽의 강한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 사이의 압력 차로 인해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 예보에 따르면 일요일 밤 남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약 0.5인치의 강수가 예상되지만, 침수 위험은 낮다.

월요일에도 간헐적인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월요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이후 예보가 좀 더 명확해질 것" 이라며 "폭풍의 강도와 경로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블루크로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변경으로 1만2천 명 이상 환자 영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의료보험사 블루크로스(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achusetts, BCBS)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PO 플랜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베이스라엘 레이히 헬스소속 1차 진료의를 이용하지 못한다.

해당 BCB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PO 플랜 가입자들은 보험 플랜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치의를 찾아야 하며, 베이스라엘 레이히헬스 1차 진료의를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외(out-of-network)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로 인해 1만2천600명의 노인 및 장애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겪게 된다.

이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변화는 매스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 MGB)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BCBS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 약 1만9천 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MGB 소속 1차 진료 네트워크에서 제외되고 통보받았다. MGB와 베이스라엘 레이히는 각각 주에서 가장 큰 의료시스템과 두 번째로 큰 의료시스템이다.

블루크로스와 베이스라엘 레이히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변화가 “상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블루크로스와 베이스라엘 레이히 헬스 퍼포먼스 네트워크가 메디케어 회원과 환자의 진료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내린 것”이라고 양측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번 계약 종료는 블루크로스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HMO 플랜은 주치의를 통한 진료 조정과 전문의 의뢰(referral)가 필요하지만, PPO는 환자가 별도의 의뢰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블루크로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PO 가입자들은 여전히 베이스라엘 레이히 헬스와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Cambridge Health Alliance)의 병원 및 전문의를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이번 변화에 따라 다가오는 오픈 등록 기간 동안 다른 플랜 옵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베이스라엘 레이히 헬스 퍼포먼스 네트워크 소속 1차 진료 의사들은 블루크로스 커머셜 PPO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블루크로스는 이번 계약 외에 다

## <전체 기사 읽기>

른 네트워크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매년 가을 전체 병원과 제공자의 3분의 1과 계약을 협상한다며 일부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메디케어 플랜의 대안이다. 시력·치과 진료와 같은 추가 혜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이 주치의와의 관계에서 차질을 빚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변화는 주 전체의 더 큰 1차 진료 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 보건정책위원회(Health Policy Commission)가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은 주치의를 찾기 어려우며, 주 내 1차 진료 의사 상당수가 고령화되고 있다. 새로 의료 시스템에 합류하는 1차 진료 의사는 은퇴하는 의사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료 접근성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보스톤은 특히 심각하다. 인력 중개 회사 AMN 헬스케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톤 환자들은 새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 평균 69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는 애틀랜타에서 워싱턴 D.C.까지 15개 대도시 중 가장 긴 대기 기간이다.

보스톤에서 새 가정의학과 진료를 잡는 데 가장 긴 경우는 182일, 즉 약 6개월이 걸렸다.

hsb@bostonkorea.com



##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사추세츠 예산 37억 달러 삭감

### ▶▶1면에 이어서

으로 메울 수는 없다”며 “주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법무장관과 법무팀이 이러한 불법적 조치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총 37억 달러 가운데 약 33억 달러는 의회가 삭감한 것이며, 나머지 3억 9,9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삭감 항목에는 국도안보, 재난 예방,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튜터링, 학교 보안과 시설 개선, 영유아 및 학생 건강식품 지원,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 인력, 약물중독 치료, 광대역 통신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대시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의 과급효과도 드러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매사추세츠는 올해만 6억 6,400만 달러의 세수 삭감이 예상되며, 매스헬스(MassHealth)와 헬스 커넥터(Health Connector)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던 주민 약 3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10만 8,500명 이상이 식품보조(SNAP)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힐리 행정부는 앞으로도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대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 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님께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뉴잉글랜드의 가을, 매사추세츠 단풍 명소 4선- 보스턴 단풍 가이드 2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 도심 단풍 명소에 이어,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 지역의 숨겨진 보석 같은 단풍 명소를 소개한다. 보스턴 도심의 단풍도 아름답지만, 매사추세츠의 진정한 가을은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만날 수 있다.

웅장한 산맥과 구불구불한 강계곡,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작은 마을들까지, 이곳의 가을은 단순한 단풍 구경을 넘어 뉴잉글랜드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캐나다 단풍나무(설탕 단풍나무)가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물들고, 자작나무와 히코리나무가 황금빛 노란색을 더하며, 참나무가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매사추세츠 전역을 물들이고 있다. 2025년 가을, 매사추세츠 관광청과 단풍 전문가, US 뉴스 트래블 세곳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단풍 명소를 소개한다.

각 지역은 독특한 매력과 역사, 그리고 숨막히는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10월 중순부터 말까지가 절정기이다. 하이킹을 좋아하든, 드라이브를 선호하든, 역사 탐방을 원하든, 이 네 곳은 당신의 가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니 놓치지 말고 특별하게 즐겨보자.

1. 마운트 그레이록 주립 보호구역(Mount Greylock State Reservation)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높은 산인

〈전체 기사 읽기〉

마운트 그레이록은 3,491피트의 정상에서 버몬트의 그린 마운틴과 타코닉 산맥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단풍 명소다. 정상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10월이면 화려한 단풍으로 뒤덮여 마치 불타는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장관을 선사한다.

정상에는 1932년에 지어진 우아한 전쟁 기념탑과 Bascom Lodge가 있어 식사와 숙박이 가능하며, 하이킹 트레일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매년 11월 1일에 접근 도로가 폐쇄되므로 10월 중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주소 : Visitors Center/Park Headquarters

30 Rockwell Road, Lanesborough, MA 01237

웹사이트 : <https://www.mass.gov/locations/mount-greylock-state-reservation>

2. 모호크 트레일(Mohawk Trail)

매사추세츠 주를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도로인 Route 2, 일명 모호크 트레일은 그린필드에서 노스 애덤스까지 이어지는 경이로운 단풍 드라이브 코스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단풍 파노라마는 뉴잉글랜드 가을의 정수를 보여준다.

도중에 만나는 작은 마을들과 농장 직판장, 과수원은 여행에 특별한 즐거움을 더하며, 마운트 그



레이록으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해 두 곳을 함께 방문하기에 완벽한 루트다. 드라이브 내내 이어지는 강계곡과 산맥의 풍경은 카메라를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웹사이트에 자세한 경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자.

경로 : Route 2, Greenfield to North Adams, MA 웹사이트 : <https://www.mohawktrail.com/>

3. 파이오니어 밸리(Pioneer Valley)

코네티컷 강을 따라 노스필드에서 스프링필드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파이오니어 밸리는 구릉진 언덕과 농지가 조화를 이루는 50마일의 단풍 천국이다. 역사적인 디어필드 마을, 여러 대학의 식물원과 미술관, 그리고 강을 따라 펼쳐지는 단풍 풍경이 어우러져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노샘프턴과 애머스트를 거치는 이 루트는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많아 미식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Quabbin Reservoir로 짧게 우회하면 호수를 둘러싼 숲의 단풍이 물에 비치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경로 : Route 5/10, Northfield to Springfield, MA 웹사이트 : <https://www.visit-massachusetts.com/berkshiresandpioneer-valley/>

4. 케이프 앤 해안 지역(Cape Ann Coastal Region)

뉴버리포트, 임스위치, 글로스터, 록포트로 이어지는 케이프 앤 해안 드라이브는 단풍과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풍경을 선사한다. 내륙의 화려한 단풍과 해안의 푸른 바다, 역사적인 어촌 마을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뉴잉글랜드 가을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Castle Hill on the Crane Estate에서 바라보는 강 하구의 전망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록포트의 상징인 Motif #1 어선 창고 주변의 가을 풍경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어왔다. 해변 산책과 해양 생물 관찰, 호박밭과 옥수수 미로까지 가을의 모든 즐거움이 담겨 있는 곳이다.

경로 : Coastal Route 1A/127, Newburyport to Rockport, MA 웹사이트 : <https://capeannvacations.com/>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턴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CHOISIGNS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mailto:choisigns@yahoo.com)

제 5회 뉴잉글랜드지역

# 동해·독도



신청서 링크

## 지명표기 실태조사 및 시정활동 공모전

### 주제

공공 장소의 지도, 출판물, 학교 교과서 및 웹사이트 등에 표시된 독도와 동해 표기 실태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현재 문제 조사 후 바른 표기 알리는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부문별 공모 작품유형

- 그림일기 (킨더~3학년): Letter or Legal Size, 50~250자 손글씨
- 포스터 (4~7학년): 12x18 in, 300~1000글자의 내용 별도 첨부
- 프레젠테이션 (8~11학년): 5분 이내의 PPT 활용 비디오, mp4 포맷
- 교사 보고서: 수업내용 보고서 (자유형식)

### 시상 내용

- 전체 대상 '나라 사랑상' (총영사상)
- 킨더~11학년: 각 학년별 금, 은, 동
- 교사부문 별도 시상
- 참가자 전체 시상

10/18/25

10/31/25

12/6/25

등록 마감

작품제출 마감

시상식

(동요합창제 직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참여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K~11학년
- 뉴잉글랜드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 개인 참여 (개인당 1작품 참여)
- 외국인 친구와 활동 참여 경우 특별 시상

###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 (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조사 & 시정 노력 및 활동에 대한 결과
- 작품 완성도 등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외교부



주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톤코리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이 광고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편집부 권시아 학생이 제작한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 김총영사, '보스턴 K-과학자들과 함께한 개천절'...한미 과학 협력 강조

▶▶ 1면에 이어서

개 부스 중 8개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생명과학, 과학관련 기업 등으로 채워졌다.

김총영사는 연설을 통해 “특히 이번 행사는 생명과학·인공지능 등 세계 혁신의 최전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다. 오늘 이 행사는 5천년전의 한국의 건국을 기리는 행사임과 동시에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과학자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보스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보스턴 총영사관이 개천절 행사를 한인 과학자들 중심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영사는 지난 몇 년간 개천절 행사를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물색했었고 결국 과거 보스턴 학생시절 자주 방문했던 과학박물관으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보스턴에서 연구와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모시자.” 는 생각을 더해 이 같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또한 “K-제품, K-문화,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보스턴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마워한다면서 보스턴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지나 권 공공안전부 차관은 축사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와

김 드리스콜 부지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업적에 대한 존경과 감사추세츠 경제, 혁신 생태계, 그리고 활기찬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자신이 워싱턴 DC 근교의 마을에서 자랐으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데이터 분석가였던 어머니는 과학계 진출을 원했으나 자신이 정치학과 역사를 전공하려 했을 때 정직과 끈기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택을 존중해주었다고 밝혔다.

권차관은 “개천절은 우리의 뿌리, 인내,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비전을 일깨워 준다. 이 날은 한국 문화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그 유산이 우리가 어디에 살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영감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팀 리치 과학박물관장(President, Museum of Science)은 자신의 부인이 전주 출신이라며 한국과의 개인적인 연을 강조했다. 리치 관장은 “자신은 학문과 글을 사랑한 세종대왕을 마음에 품은 가정에서 자랐다.” 고 밝히고 로봇공학, 의학, 그리고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케다의 CEO로 내년 6월 취임 예정인 줄리 김 다케다 미국지사 사장이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김 사장은 “저

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그리고 개천절이 상징하는 핵심 정신은 바로 끈기(perseverance) “라며 과학자야말로 이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땡스기빙 저녁에는 칠면조 옆에 김치를 두는 것이 미국문화와 조화한 한국의 문화 즉 가족의 ‘혼합된 유산’ 이라고 말하고 “개천절이 지닌 그 인내와 자긍심의 정신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담아내자” 고 독려했다.

이어 연단에 선 장영수 한인회장은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에게 개천절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과 도전을 안고 살아가는데 한인회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장회장은 “많은 분들이 ‘한인회가 있는 지도 몰랐다’ 고 한다” 며 “더 많이 알려주고 물어보고 불평도 하면서 함께 해달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발전하겠다” 고 당부했다.

개천절 기념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K 뮤직 연주를 즐기며 한국업체들의 부스를 찾아 대화와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총영사관은 이날 행사에 부스를 연 세라젠(CERAGEM), 대한항공, H마트, 맵스젠(MEPSGEN),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서울대학병원(SNUH), 메디사피엔스(MEDYSapiens), 인텍사이언티픽(Intek Scientific), 보건산업진흥원(KHIDI), 아토미(ATOME) 10개 기업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5개 스티커를 받으면 선물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 참가자들과 부스가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했다.

장수인 평통 부회장은 “아주 색다른 시도였으며 아주 인상 깊었다. 개천절 행사를 이렇게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고 이번 개천절 행사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한순용 노인회장은 “지금껏 한인회 행사에서 보지 못했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을 초대해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이들에게 이곳의 한인회, 노인회 등 각종 단체를 인지하게 한다는 점이 좋았다” 고 후한 점수를 주었다.

반면, “과학자들이 많이 모인 것은 좋은 일이나 이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초대되지 못한 것 같다. 과학자들을 위한 행사는 따로 하는 게 좋았다” 며 아쉬움을 표하는 한인도 있었다.

한인행사에 처음 참가했다는 한 참가자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참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해서 좋았다. 초대해준 총영사관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총영사관이 10월 6일 개천절 행사 기념식이 끝나고 참석인원 전원이 손을 흔들며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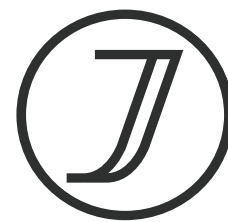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사진 위 시계방향으로) 김재휘 총영사, 장영수 한인회장, 팀 리치 과학박물관장, 지나 권 공공안전부 차관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아-하마스, 1단계 가자휴전 전격 합의... "72시간내 인질석방"

### 트럼프 "아랍, 미국 등에 매우 위대한날...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 네타냐후 "국가적 승리 · 신의 도움, 인질 모두 데려올것"...하마스 "합의 이행 보장돼야" "합의이행 72시간내 생존인질-팔 수감자 교환"...트럼프 "아마도 13일에 인질 석방"

(워싱턴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신창용 오수진 기자 =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가자지구내에서의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측의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peacemakers)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 소식에 대해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은 "역사적인 성취"라고 규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우리 인질들의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적 성공이

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며 "인질들을 풀어주는

고 밝히며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합의 이행 72시간 내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천 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합의된 내용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하마스측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예상되는 휴전협정 서명 72시간내에 생존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현재 약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생존 인질들이 11일이나 12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이 아마도 13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의 마지드 알 안사리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며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좋은사람들**  
www.junghwan.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원사업팀장 **김수남**

# 젠슨 황 "트럼프의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 美에 못왔을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미국에 올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정책이었다면 가족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와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당시에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의 전문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비자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보다 100배 인상된 수준이다.

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으로 이주한 후 9살 때 형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부모님은 약 2년 뒤 합류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10만 달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가족과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

의 토대"라며 "이는 누구든 노력과 재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상(ideal)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가족은 더 많은 기회와 이 놀라운 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엔비디아는 1천400건의 비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H-1B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면서 "뜻밖의 행운(serendipity)이 일어날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도록 정책에 일부 '개선'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이 자신과 같은 가족의 이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최근 AMD가 오픈AI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자사 지분의 10%를 오픈AI에 제공하기로 한 것 대해서는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 제공은) 상상력이 돋보이고, 독특하며, 놀랍다"며 "AMD가 다음 세대 제품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준다는 게 놀랍다"며 "내 생각으로는 영리하다(clever)"라고 언급했다.

AMD는 지난 6일 오픈AI에 연수 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AMD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전력으로 환산하면 6기가와트(GW·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에 달한다. AMD는 특히, 오픈AI가 자사 지분을 최대 10%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

엔비디아도 앞서 지난달 22일 오픈AI에 향후 10년간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픈AI는 전력 소모 10GW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GPU 400만~500만개에 해당한다.

황 CEO는 "이 투자 구조는 AMD의 거래와 매우 다르다"며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발표 이후 AI 인프라 거래의 '자전 거래'(circular nature)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으로 오픈AI가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오픈AI가 엔비디아와 거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아직 그 돈이 없다"며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자금은 매출 증가, 주식 발행(지분) 또는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 오픈AI에 투자했을 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한국인의 라면 사랑...1인당 한해 79개 먹어 '세계 2위'

## 지난해 세계 라면 소비 '역대 최대' 1천231억개 중국·인도네시아·인도·베트남·일본 소비량 상위



22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가 새겨진 라면 제품이 진열돼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식품 누적 수출은 67억1천500만달러(약 9조4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인이 지난해 1인당 79개의 라면을 먹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베트남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9월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5만명이었다. 1인당 라면 79.2개를 먹은 셈이다.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는 2021년 73개에서 3년 만에 6개 늘었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난해 2021년

37억9천만개에서 2022년 39억5천만개, 2023년 40억4천만개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소비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외식을 자제해 라면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2020년(41억3천만개)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2020년까지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였으나 2021년부터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

개 소비했다. 베트남 인구 1억명이 라면 81억4천만개(4위)를 소비했다. 베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인당 라면 소비 개수가 2021년 88개에서 3년 사이 7개 줄었다. 베트남과 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 소비가 많은 국가는 태국(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개) 순이다. 전통적으로 국수를 즐기는 식문화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소비

량이 월등히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에는 1인당 소비량이 10개도 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에서는 라면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부터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작됐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에서는 라면이 간식이고 용량이 적어 1인당 소비 개수가 많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량까지 고려해 1인당 라면 소비량을 따져보면 한국이 가장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라면 소비량은 1천230억7천만개로 전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러 나라에서 물가 상승으로 비교적 저렴한 식품인 라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최대 라면 시장은 중국·홍콩으로 지난해 소비량은 438억개다. 이는 한국의 10.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2억8천만명인 인도네시아가 143억7천만개로 2위이며, 지난 2023

년 3위 시장으로 한 계단 올라선 인도는 83억2천만개로 베트남보다 2억개가량 많다.

그다음은 일본(59억개), 미국(51억5천만개), 필리핀(44억9천만개), 한국(41억개), 태국(40억8천만개), 나이지리아(30억개) 순이었다.

시장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라면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도 라면 소비가 늘고 있다.

농심[004370] 신라면과 삼양식품[003230]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월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늘어난 11억1천600만달러(약 1조6천억원)를 기록했다.

한 라면업체 관계자는 "K컬처의 영향력이 지속 확산하고 있어 한동안 한국 라면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라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10th - OCT. 16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SPICY MALA LOBSTER

Buttery, succulent bites packed with layers of flavor. Made easy with fresh ingredients from H Mart! 부드럽고 담백한 랍스터에 마라의 화끈한 매콤함을 더한 마라 랍스터,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b>Shanghai Choy</b> 청경채 LB <b>\$0.99</b>	<b>Florida Pomelo</b> 플로리다산 포멜로 LB <b>\$1.49</b>	<b>Stem Tomato</b> 줄기 토마토 4 LB/BOX <b>\$4.99</b>	<b>Hot House Cucumber</b> 온실 오이 EA <b>\$0.99</b>	<b>Korean Chestnut</b> 한국산 밤 LB <b>\$9.99</b>	<b>Chinese Cauliflower</b> 중국 컬리플라워 LB <b>\$1.99</b>	<b>Fuyu Persimmon</b> 단감 LB <b>\$2.99</b>
<b>Green Seedless Grape</b> 씨없는 청포도 LB <b>\$2.99</b>	<b>Korean Campbell Grape</b> 한국산 영동 포도 3.3 LB/BOX <b>\$19.99</b>	<b>Young Radish/Baby Radish/Baby Napa</b> 총각무/얼무/풋배추 BUN <b>3\$1.99 FOR</b>	<b>Green Onion</b> 파 BUN <b>3\$1.99 FOR</b>	<b>Korean Radish/Cabbage</b> 한국 무/배추 BOX <b>\$14.99</b>	<b>Dragon Fruit White Flesh</b> 용과 LB <b>\$2.99</b>	<b>Green Bean</b> 그린 빈 LB <b>\$0.99</b>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Top Blade Steak</b>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b>Fresh Beef Flank Steak</b> 육개장용 생소 앞치마 양지 LB <b>\$9.99</b>
<b>Frozen Ox Feet</b> 냉동 우족 LB <b>\$3.99</b>	<b>Pork Jowl Meat</b> 돼지 항정살 LB <b>\$7.99</b>
<b>Marinated Pork Single Belly</b> 양념 돼지 삼겹살 LB <b>\$6.99</b>	<b>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b> 양념 닭사태 LB <b>\$3.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esh Hybrid Striped Bass</b> 양식 농어 LB <b>\$7.99</b>	<b>Frozen Red Snapper</b> 홍도미 LB <b>\$8.99</b>
<b>Frozen Squid Tube</b> 오징어 튜브 US\$/LB <b>\$4.99</b>	<b>Head-on Shrimp</b> 머리새우 20-30'S/LB <b>\$4.99</b>
<b>Frozen Barramundi</b> 바라문디 800-1000'S/LB <b>\$3.99</b>	<b>Frozen Swai Fillet</b> 스와이 필렛 LB <b>\$2.99</b>

### SMART CARD MEMBER ONLY

<b>PALDO Volcano Carbonara Chicken Noodles</b> 팔도 볼케이노 까르보나라 치킨볶음면 4.59 OZ X 4 EA/PKG <b>\$4.99</b>	<b>PALDO Mr. Kimchi Kimchi Ramen</b> 팔도 미스터김치 김치라면 4.06 OZ X 4 EA/PKG <b>\$4.99</b>
<b>CROWN Corn Chips</b> 크라운 콘칩 15.52 OZ (10 EA/BOX) <b>\$8.99</b>	<b>CROWN Jolly Pong Cereal Snack</b> 크라운 조리풍 17.64 OZ (10 EA/BOX) <b>\$8.99</b>

<b>RAW NATURE Cooked White Rice</b>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b>\$10.99</b>	<b>RAW NATURE Cooked Brown Rice</b>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b>\$11.99</b>	<b>HAIO Gochujang Red Pepper Paste</b> 해오름 태양초 쌀 고추장 MILD HOT 2.2 LB <b>\$4.99</b>	<b>HALLA FOOD Tuna Sauce</b> 한라식품 참치액 16.9 FL OZ <b>\$6.99</b>	<b>PULMUONE Soupy Topokki</b>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 14.9 OZ <b>\$4.99</b>
<b>PULMUONE Shrimp Fried Rice</b> 풀무원 새우 볶음밥 15.9 OZ <b>\$5.99</b>	<b>HAIO Canned Whelk</b>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b>\$5.99</b>	<b>CHUNG JUNGONE Korean Crispy Pancake/Frying Mix</b> 청정원 바삭 부침/튀김 가루 35.27 OZ <b>\$2.99</b>	<b>ARIZONA FARM Honey Bear</b> 아리조나 팜 허니 베어 12 OZ <b>\$2.99</b>	<b>K TOWN Sweet Melon Cream Cracker Meloni</b> K TOWN 메로니 11.29 OZ <b>\$2.99</b>
<b>K TOWN Sesame &amp; Coconut Cracker</b> 케타운 고소애 11.29 OZ <b>\$2.99</b>	<b>WOONGJIN Green Plum Drink</b> 웅진 초록 매실 50.72 FL OZ <b>\$2.99</b>	<b>Bday Quakka Plush</b> 모피타운 생일 퀴카 CREAM/BROWN \$17.99 <b>\$9.99 MEDIUM EA</b>	<b>Korean Stone Bowl for Bibimbap (w/o Lid)</b> 한국산 자연산 돌 비빔기 7.08 INCH 7.87 INCH <b>\$16.99 \$22.99 EA</b>	<b>DAENGGIMEORI Ginseng Blossom Shampoo &amp; Treatment</b> 땀겨머리 기골드 진생 블라썸 샴푸 & 트리트먼트 세트 13.5 FL OZ X 2 EA/SET <b>\$24.99 &lt;del&gt;\$39.99</b>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leeb@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ve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hyk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b> 617.447.0501 mi@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978.866.3248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인주</b> 401.538.3397 iv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b>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박</b> 617.455.7710 grace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수진</b> 617.528.6973 su@bostonpremierrealty.com	 <b>박사</b> 213.503.0347 sar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박순태</b> 617.913.3388 sun@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영순</b> 781.836.3412 young@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eesoo@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현</b> 617.915.1162 jhy@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규</b> 617.543.0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b>박민기</b> 404.641.9192 min@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크 김</b> 781.59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공시가 · 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 세법개정 증세엔 부작용 학습효과...공시가 현실화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거론 6·27 대출규제 후속조치 고심...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 지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을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 · 서울 =연합뉴스) 이준서 임수정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 · 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무게가 쏠린다.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보유세 강화' 신중검토...현실화율 · 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보유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관

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강하다. 과거 노무현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근거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상향 목표

단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

정부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짜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제를 선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

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 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붙어날 수 있다.

◇ 'DSR 강화' 대출 더 조이고... 규제지역 확대하나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

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 · 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40%를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을 드러내 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순위에서는 다소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의 무가 부과돼 겹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부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40** Celebrating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OCT. 9<sup>TH</sup> - OCT. 16<sup>TH</sup>, 2025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 SIZE/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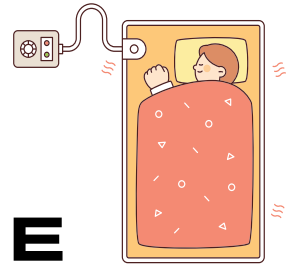
~~REG. \$29.99~~

**\$15.99**



**STEAMBOY Carbon Mat**

스팀보이 카본매트



STCM22S/TWIN (39 X 75 INCH)



**LIMIT 2**

~~REG. \$199.99~~



PURPLE



GREY

**\$99.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김은숙 신작 김우빈 "빛나는 대사 많아...감독 하차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이병헌 감독의 중도 하차로 흥역을 치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가 감독 없이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다 이루어질지니' 제작발표회에는 출연 배우 김우빈·수지·안은진·노상현·고규필·이주영 등 6명만 자리했다.

보통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기획 당시 '도깨비',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와 영화 '극한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감독이 연출도 중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했고, 안길호 감독이 나머지 부분 연출을 맡았다.

최근 공개일을 확정하고 예고편을 내놓으면서도 연출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김우빈은 감독이 불참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병헌·안길호) 두 감독님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워주신 것으로 안다"며 "이 감독님과 '스물'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행복했다. 마무리까지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안 감독님이 뒤에 와서 저희 스태프와 배우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 분)가 사이코패스 가영(수지)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중심으로 얽히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우빈은 "친숙한 요술램프라는 소재로 신선한 질문을 던지는 시리즈"라며 "3가지 소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본성, 사랑의 의미, 선과 악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질문한다"고 했다.

수지는 "일단 대본이 새로웠다"며 "제 캐릭터가 반사회 인격장애인데, 매력적이고 생각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우빈과 수지는 KBS 2TV 드라마 '함부로 애틀하게' 이후 9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

수지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다"며 "이 작품은 코미디 요소도 많아서 '티키타카'(빠르게 주고받는 대사)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월하게 느껴지고 호흡이 잘 맞았다"고 돌아봤다.

김우빈은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에 이어 김은숙 작가 드라마에만 세 번째로 출연한다.

그는 "언제나 신선하고 재미있는 대사를 던져주셔서 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것이 즐거웠다"며 "빛나는 대사가 많다"고 귀띔했다.

김은숙 작가의 장기인 로맨스 드라마에 지니, 천사, 신수(신령한 짐승) 등 판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지니와 가영이 서울의 상공을 가로지르고, 천사 수현(노상현)과 지니가 큰 스케일의 액션 장면을 펼치기도 한다.

노상현은 "대본이 너무 신선하고 소재가 독창적"이라며 "지니와 천사의 싸움이라는, 저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큰 스케일의 액션도 했다"고 말했다.

고규필은 원래는 재규어 형태의 신수지만, 평소에는 인간으로 변해 마을 일꾼으로



일하는 세이드 역을 맡았다. 그는 "본체는 재규어라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느냐"며 "변신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신경 써서 포즈를 취하고 앵글을 잡았다"고 웃었다.

안은진은 베일에 싸인 여자 미주, 이주영은 가영의 친구 민지로 등장한다.

이 드라마는 예고편이 공개된 뒤 지니의 이름이 무슬림 종교관 속 악마를 뜻하는 이블리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우빈은 "드라마를 보시면 작은 오해가 다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노력 보인다" 입소문에...우주소녀 다영, 솔로곡 '바디'로 두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노력한 시간이 무대에서 보인다", "무대에서 독기가 느껴진다."

최근 그룹 우주소녀 다영의 신곡 '바디'(body) 무대 영상 댓글에는 '노력'과 '독기'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우주소녀의 과거 무대를 기억하는 팬도, 다영을 몰랐던 팬도 '무대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라며 호평 일색이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영이 솔로곡 '바디'를 앞세워 음악방송 1위에 오르고 음원차트에 진입하는 등 하반기 K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4일 발매된 '바디'는 다영이 데뷔 9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솔로 싱글 '고나 럽 미, 라잇?'(gonna love me, right?)의 타이틀곡이다. 묵직한 비트와 중독적

인 후과 함께 다영의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진 팝 댄스곡이다.

음악방송에 나선 다영은 탄탄한 라이브와 박력 있는 안무를 선보이며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다영이 댄서들과 함께 빠른 박자의 안무를 선보이는 짧은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2백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입소문은 음악방송 1위, 각종 음원 차트 진입이라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3일 음악방송 '더 쇼'에서 1위를 차지한 다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많이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바디'는 또한 지난달 22일 멜론 '톱 100' 차트에 처음 진입한 뒤 이달 2일 최고 24위를 차지하는 등

가파르게 순위를 끌어올렸다. 벅스 차트에서는 2일 기준 7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보인다.

팬들의 이러한 호응을 두고 다영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어릴 적 상상했던 무대 위 저의 모습을 현실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고, 가수로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며 "이번 앨범으로 무대와 제 음악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가요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다영이 우주소녀 활동 당시와 구별되는 파격적인 비주얼과 기승전결이 뚜렷한 음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우주소녀로 데뷔한 이래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다영은 이번 앨범에서 자유분방하고 자신감 있



는 모습을 내세웠다.

여기에 다영이 3년 전부터 솔로 앨범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팬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다영은 앨범 제작 기간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곡 작업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주도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트렌드에 어울리는 노래와 가수의 서사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가수가 각고의 노력으로 솔로 앨범을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는 '고진감래'의 서사가 팬들의 반응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 ▶▶ Meet Me at

# the MFA ▶▶ Fall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 Open House

## Indigenous Peoples' Day

- ▶ Monday 10/13
- ▶ 10 am–5 pm
- ▶ Free admission for MA residents



### Special Event

## Diwali

- ▶ Thursday 10/23
- ▶ \$5 admission after 5 pm

### Special Event

## UNIQLO Free Admission Day

- ▶ Saturday 10/25
- ▶ 10 am–5 pm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8)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

최근 한국의 한 신문사가 주최한 재테크 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한다. 이 행사에서 '투자 고수'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스테이블코인 등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새 정부 정책을 고려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언은 현시점에 집중된 단기 투자에 불과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매매 행위야말로 '투자'가 아니다. 방향을 맞히면 수익을 내지만 틀리면 큰 손실을 보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 시장을 도박판처럼 만든 책임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있지 않다. 금융회사들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 열

기를 부추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장 전망과 전략이 쏟아져 나온다.

2020년 팬데믹 초기, 주식 투자 열풍이 한창일 때 한 전문가는 "외국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옆집 자식보다 내 자식에게 투자하라"며 한국 주식 투자를 강력히 권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럴듯한 조언이었지만, 한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 시장이 크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한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1.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한다. 반면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은 장기 통계의 신뢰도가 높고, 위험 분산 효과도 크다.

수익률 통계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2023년/2024년 연간 수익률: • KOSPI: 18.73% / -9.63%

• 미국 S&P 500: 24.9% / 26.51%, 그리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한국 5.98%, 미국 12.84%

양국 시장의 수익률 차이는 무려 7%포인트다. 이는 10년마다 투자금이 두 배로 붙어 나오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실제로 한 기사 제목처럼 "코스피 3000 넘었지만, 수익률은 미 주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한국 주식 시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대박'을 노리는 열기로 가득하다. 이런 단기 매매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순간의 짜릿한 재미는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

다. 반대로 올바른 주식 투자는 '사업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내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는 부를 만들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오락을 위한 투기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투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투자 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 대부분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일반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번다. 정말 고수라면 굳이 대중에게 비법을 공유하지 않는다. 빠른 돈을 좇는 투기적 욕심은 언젠가 반드시 좌절로 끝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올바른 투자로 부를 축적해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안정돼야 소비가 늘며,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건전한 투자가 경제의 근본임을 잊지 말자.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강원도 하반기 특판전 GANGWON PROVINCE SALE EVENT



OCT. 10<sup>TH</sup> - OCT. 23<sup>RD</sup>, 2025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제품들을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Specials from the peaceful mountains of the Gangwon Province.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Province with our exclusive product showcase.



## GOLDENWIND Hwangtae Yangnyeom Gui

금빛바람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6.35 OZ ~~\$11.99~~

**\$ 8.99**



Shiitake Mushroom  
양양 생표고버섯  
2.2 LB/BOX ~~\$31.99~~

**\$ 21.99**

CHUNGHAE S & D Premium Roasted Seaweed  
청해에스엔디 해초사랑 도시락김 선물세트  
0.1 OZ X 27 EA/PKG ~~\$17.99~~

**\$ 11.99**



Steamed Glutinous Corn  
강원도 7번국도 찰옥수수  
10.58 OZ ~~\$6.99~~

**\$ 4.99**



HAEMOUN Raw Soybean Pulp  
해모운 홍천콩 생비지  
5.29 OZ ~~\$3.49~~

**\$ 2.49**



GOLDENWIND Dried Pollock Flavored Soup  
금빛바람 용대리 황태진국  
1.1 LB ~~\$5.99~~

**\$ 3.99**



ODAESAN FOOD Korean Boiled Pork Herb Tebag  
오대산식품 수육 재료 티백  
4.23 OZ ~~\$6.99~~

**\$ 4.99**



Korean Traditional Sikhye Drink  
철원 오대쌀 식혜  
1.5 L ~~\$8.99~~

**\$ 5.99**



Korean Traditional Buckwheat Sikhye Drink  
봉평 메밀 냉 식혜  
1.5 L ~~\$8.99~~

**\$ 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살기 좋은 미국 도시 탑6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ipaik@ownnewengland.com



**1. 캘리포니아 LA & 오렌지 카운티** - 오렌지 카운티하면 생각나는게 얼바인 플르튼 그리고 뷰에나파이다. 엘에이하면 코리아타운을 떠올릴 것이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94만 달러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다 갖춰진 곳이다.

이곳에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최고에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한인병원, 은행, 법률사무소, 학원은 물론 한국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까지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우수한 학교와 철저한 치안을 자랑해 자녀 교육을 선호하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이다.

여기에 연중 따뜻한 날씨 해변, 산 풍부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비싼 부동산 가격이다. 주택 구매는 물론 렌트비 부담도 매우 크다. 또한 약명 높은 교통 체증은 출퇴근 이외에 일상 생활에까지 피해가 된다.

**2. 뉴욕 & 뉴저지 지역** - 뉴욕과 뉴저지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주가 바뀌는 지역이다. 특히 포트리(Fort Lee)와 펠리세이드스 파크(Palisades Park)은 미국에서 한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펠리세이드스 파크에 한인 인구는 이 타운에 30%라고 한다. 포트리와 펠팩에는 한인마트와 한인식당 그리고 한인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합하여 한인 인구는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60만불이다. 이곳은 한국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도시다. 한인 상가, 의료, 법률 서비스 등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이민 초기에 겪는 언어 장벽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곳이다. 또한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의 풍부한 문화적 혜택과 고액 연봉 일자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나 생활비 부담이 크다. 또한 뉴욕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뉴저지주의 재산세 부담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집값은 엘에이보다 낮을지라도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높아 실질적인 주택 유지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

**3. 애틀란타 조지아** - 돌루스와 스와니 지역을 중심으로 H마트와 시온마켓이 들어서며 거대한 한인 상권이 들어서 있다. 조지아주 한인 인구는 약 7만 2천 명으로 그중 90%가 애틀란타 광역권에 모여 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42만불로 미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곳에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주택 부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 기아 등 한국 제조업의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이 활발하며 부동산 상승 또한 기대 된다. 반면에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불쾌지수가 높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적고 도시 일부지역은 치안에 유의해야 한다.

**4. 달라스 텍사스** - 급 성장중인 달라스는 케롤톤과 플레이노 지역이 제 2의 코리아타

운으로 불리울 만큼 한인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곳에 H마트와 시온마켓도 위치해 있다. 텍사스에 주 한인 인구는 약 11만 명으로 그중 달라스 지역에서만 8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39만 달러로 미국 평균가격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곳에 가장 장점은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대기업에 대 투자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합리적인 주택 가격과 풍부한 일자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최적의 환경이다.

하지만 이곳도 40도를 넘는 폭염이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 오는 등 날씨 변화가 극단적이다. 주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 세율이 약 2.1%로 높은 편이며 대중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차 없이는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 최근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5. 시애틀 워싱턴** - 한인들은 페달라웨이안나 린우드 같은 교외지역에 거주하면 H마트도 이곳에 있다. 워싱턴주는 한인 인구는 약 10만명에 달하며 그중 2/3 이상이 시애틀 광역권에 살고 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90만불이며 미국 중위 가격보다 약 2배이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 세계적 IT 기업들이 많아 고액 연봉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며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택 가격은 물론 전반적인 물가가 매우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 또한 연중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 햇빛을 보기 힘든 점도 단점이다. 높은 판매세와 유류세가 있어 소비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6. 시카고 일리노이** - 네이퍼빌과 삼버그, 알링턴 하이츠 같은 외곽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H마트도 위치해 있다. 한인 인구는 약 7만 3천명 정도다. 그중 절반 이상이 시카고 광역권에 살고 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약 49만달러로 미국 평균 가격보다 조금 높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대도시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구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시카고 외곽 지역은 우수한 공립학교 학교를 자랑하고 뉴욕이나 LA에 비해 교통 체증이 덜하다.

그러나 겨울이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생활에 불편함이 크며 난방비 등 비용 부담이 있다. 또한 재산세와 주소득세가 모두 높은 편에 속하며 도심의 일부 지역은 치안 이슈가 존재한다.

이곳은 한국인이 이직을 위해 거쳐가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잉이나 제약사등 안정적인 직장이 많아 커리어를 쌓기가 좋지만 겨울이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리므로 장기 거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 리타이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실 경우 위에 6곳에 도시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0월 12일 - 10월 18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 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둘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소띠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 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불편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온전히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사란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범띠 | 안전한 편을 택해야**

- 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겠습니다. ●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 운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제나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을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2, 17일 길일. 16, 18일 주의.

**용띠 | 한 우물만 파야**

-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 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여기저기로 분산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게 됩니다. ● 애정: 불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2, 18일 길일. 13, 17일 주의.

**뱀띠 |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 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을 때가 왔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 금전: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8일 주의.

**말띠 |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 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금전: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다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양띠 | 행복하게 해주는**

- 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프던 사람이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 금전: 실보다는 득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3,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원숭이띠 |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 운수: 이미 떠나면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머릿속의 계산으로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떠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4, 18일 길일. 12, 15일 주의.

**닭띠 |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 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 금전: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개띠 | 변화의 물결이**

- 운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았던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 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을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 '태풍상사' 이준호 'IMF 때 부모 세대처럼 뭉치는 모습 담았죠'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는데, (IMF 당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미래는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뭉쳐 이겨내는 힘을 느꼈죠."

이준호는 1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tvN 새 토일드라마 '태풍상사'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태풍상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에 직원도, 돈도, 팔 것도 없는 무역회사 사장이 된 초보 상사맨 강태풍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이준호는 자유분방한 오렌지족 청년에서 갑자기 상사맨이 돼 IMF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강태풍 역을, 김민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K-장녀이자 상사맨의 꿈을 키워가는 오미선 역을 맡았다.

이준호는 1997년 IMF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실제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는 "어렸을 때여서 사회적 분위기를 완벽하게 피부로 느끼진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를 받아오시는 등 경제활동에 굉장히 전념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가르쳐 주려 하시고, 다 함께 뭉쳐 이겨내고자 노력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이어 "(IMF 당시)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였지만 최근에도 코로나19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한 번씩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함께 뭉치는 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작품을 촬영하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단합력'을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촬영

에 임했다고 한다.

이준호는 이 작품을 찍으며 자신의 20대 시절을 떠올렸다고도 했다.

그는 "강태풍을 연기하며 사실 제가 20대에도 강태풍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저 역시 그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여러 벽에 부딪혔지만, 만약 당시 태풍의 마음으로 '태풍 정신'으로 살았다면 더 기운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상사'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도 어떻게 해야 (인생의) 큰 벽을 넘어갈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해주는 드라마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생인 김민하는 "당시 저는 3살 밖에 안 돼서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부모님과 삼촌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며 "다들 '정말 힘들었고, 별 걸 다 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 말씀에서 (연기를 위한) 키포인트를 많이 찾았다. 어둠이 있었기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극 중 인물들 각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넘어져도 다시 '영차'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997년 당시 사람들의 말투, 의상, 헤어스타일부터 사용하던 물건, 건물 등 시대상을 그대로 고증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연출을 맡은 이나정 감독은 "1997년 당시를 진정성 있게 고증하기 위해 그 시절 상사맨들을 만나 취재를 많이 했다. 실제 당시 상사에서 쓰던 '텔렉스'(전신타자기)라는 소품을 구하기 위해 박물관까지 찾아가 구해오기도 했다"며 "당시 사진 자료도 많이 찾아 봤는데, 어린 아이부터 엄마와 아빠가 함께 길에 나왔ая 있는 모습이나 회사원들이 하루 아침에 인력시장에 쏟아져 나온 모습 등은 참 마음이 아팠다"고 떠올렸다.



1997년,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또 "취재하며 만났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영차' 하고 일어나 (역경을) 완전히 이겨냈다는 데 이견이 없으셨다"며 "그분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당시 옷이나 문화 등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tvN 드라마 가운데 '눈물의 여왕' 이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임윤아·이재민 주연의 '폭군의 셰프' 후속작으로 편성됐다.

전작 '킹더랜드'에서 임윤아와 호흡을 맞췄던 이준호는 임윤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tvN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된 감회가 새롭

다고 했다.

이준호는 "아직 '킹더랜드'를 촬영했던 배우들과의 단톡방이 남아 있어 서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폭군의 셰프'가 워낙 글로벌한 성공을 이뤘기에, 다음 후속작인 저희도 좋은 에너지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드라마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여서 일단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작품도 좋은 분들과 좋은 타이밍과 좋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흥행에 욕심을 내보고 싶다"고 웃음 지었다.

gahye\_k@yna.co.kr

## 지드래곤, 싱가포르 F1 경기장서 공연...6만5천관객 운집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싱가포르의 포뮬러 원(F1) 경기장 무대에 올라 6만여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7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시가지 서킷 파당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5 포뮬러 원 싱가포르 그랑프리'(2025 FORMULA 1 SINGAPORE GRAND PRIX)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1 역사상 최초의 야간 경주가 열린 대회로, 지드래곤은 가수 엘튼 존과 함께 공연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연장에는 6만5천명의 관객이 운

집했다. 팬들은 지드래곤이 무대에 오르자 일제히 그의 본명인 '권지용'을 외치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드래곤은 '파워'(POWER),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 등 대표곡을 들려주며 1시간 30분간 무대를 선보였다.

지드래곤은 F1과 어울리는 레이싱 복장과 체크무늬 깃발 등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세 번째 월드투어 '우버멘슈'(Ubermensch)를 진행하고 있는 지드래곤은 오는 20~21일 일본 오사카, 11월 타이베이와 하노이, 12월 서울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작은 실천

무슨 일이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다. 큰 것은 큰 일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니 결과로 향하기 쉽지만, 작은 것은 생각에서 머물다가 실천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 몇 년 전부터 늘 생각에 담고는 있으면서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며칠 혼자 실행에 옮기다 만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편안하게 구입해서 먹는 음식들의 포장도 그렇다.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산을 오를 때 그리고 들과 바닷가에 갈 때는 편리한 것이 좋으니 작은 초콜릿 하나라도 개별 포장된 것을 고르는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내 '삶의 철학'이 되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부터 남의 것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 칭찬과 박수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자식의 자랑 아닌 자랑도 하게 된다. 그렇게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다른 자녀들의 칭찬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끔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고 남 자녀의 칭찬에는 인색한 이들도 가끔 만나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소한 일상은, 삶은, 인생은 그만큼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남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작은 마음 하나나 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넉넉한 삶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 가슴이 뛰고 그 열정이 글과 사전을 하는 작업에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던가.

무엇이든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실천되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이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옆으로 높이 멀리 동심원을 그리게 되고 그 원심력이 파장을 일으켜 큰 힘이 되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이처럼 삶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

뜻한 한마디의 칭찬의 시작이면 좋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보호는 누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지난봄 한국을 방문하며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탁한 공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보통 한국은 가을에 방문했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지구온난화는 어떤 지역에는 폭우를, 또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을 가져온다.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 중 대표적인 예로 열대성 저기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2004년 일본은 한 해 동안 10회의 태풍이 지나가는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플로리다 만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 위를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줬다. 또, 2005년 7월 인도 뭍바이에서는 하루 동안 1,000 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기록을 남겼고 중국 또한 심한 홍수를 겪었다.

북극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구 상공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분포된 지역과 적게 분포된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가 급격히 발달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화석 연료 사용이 많은 지역인 유럽, 북미, 동아시아 지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도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인은 결국 인간 활동이 주요원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점점 가속도를 내며 우리의 일상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는가. 이제 더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이를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환경단체의 목소리와 실천만으로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까닭이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내가 살고 내가족이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후세에 전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배워야 하는 송아지는 힘들게다. 그러나 가르치는 어미소가 말해서 무엇하랴. 훈육은 결코 쉬운일이 아닌바. 그러나 무럭무럭 자라는 송아지를 바라보는 어미소는 무척 대견할 것임에 틀림없다.

언젠가 나는 적이 있다. 다시 시를 들먹이는데, 이 지면을 통해서이다. 문정희 시인이고 제목이 '아들에게' 이다.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랑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소설에서 읽은 한구절이다. 양육하는 아버지의 다짐이다. 'My job is bringing kids (safely) into the world.' 키우는 부모의 즐거운 의무이며 무거운 책임인게다.

송아지를 키우는 암소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후세에 전하라. 몇주전 이영길목사(보스톤 한인교회)의 주일예배 설교제목이다. 새롭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임직받는 예배였다. 설교를 통해 내가 받은 메시지는 명징했다. 하늘이 주는 말씀과 임무와 책임과 권리를 후세에 온전히 전하라는 말씀이었던거다.

한마디 덧붙인다. 송아지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어미소도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송아지는 어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미소만이 건강한 송아지를 키울수 있는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6)

유튜브에서 봤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이었다. 나역시 어릴 적에 실제로 본적이 있다. 인상 깊었는데, 송아지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뒤뚱거렸다. 그러나 제발로 걸었던 거다. 울지도 않았는데, 어린 내 눈에는 무척 신기했다.

갓태어난 송아지는 온전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어미소에게 훈육을 받아야 한다. 굳게서서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어미 젖을 먹는 동안일텐데, 송아지는 천방지축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철부지 송아지를 가르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배우고 교육받는 일도 쉽지는 않을터.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에 관한 궁금증 Q&A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치매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치매 치료의 권위자인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윤 영철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Q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핵심적인 구별 기준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여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경도인지장애는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치매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 노인에 비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일이나 대화 내용을 자주 잊고,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말이나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낯짜나 요일을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전과 달리 의욕이 없고 무감각해지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즐겨하던 취미나 모임에 흥미를 잃고 점차 사람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Q 나 또는 가족의 치매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① 가까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과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연계해 줍니다.

②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분들이 평소 모습을 잘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환자 본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 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즘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으니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봐요' 와 같이 부드럽게 설득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치매는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미리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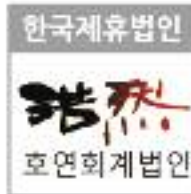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치매에 관한 궁금증 Q&A"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